

제8회 DMZ다큐영화제 청소년 다큐제작워크숍 참가자 모집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청소년 다큐제작워크숍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DMZ국제다큐영화제 앵글상영전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청소년 다큐제작워크숍 6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워크숍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광명시청소년수련관 ▲교하도서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수원영상미디어센터 등 6개 기관별로 다음달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다큐멘터리 기획과 제작 수업, 캠프,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게 되며, 완성된 수료작은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면 이달 내에 6개 지역별 미디어센터나 청소년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는 평화, 생명, 소통을 주제로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오는 9월 22일-29일 열릴 예정입니다.

kds@ifm.kr



비무장지대 달려보실래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자전거 투어'에 참가한 200여명이 임진강변을 따라 인간안보통제구역 안쪽에 위치한 초평도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다음 '비무장지대 자전거 투어'는 4월24일, 5월22일, 8월25일, 10월23일 열리며, 경기관광 누리집(www.gktou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파주/김성광 기자 hyg20@hani.co.kr

202 X 14.0 cm

"자전거 타고 DMZ 달려요"...4월 참가희망자 모집

[KFM 경기방송 = 박상욱 기자] 경기도는 파주시 임진각에서 올해 첫 '비무장지대 자전거 투어'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DMZ 일대를 달리는 국내 유일의 행사로, 도는 2010년부터 매년 5차례 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오전 임진각을 출발해 통일대교와 초평도 등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 임진강변을 달리며 봄 정취를 만끽했고, 엽서 보내기, DMZ 사진전, 쌍안경 관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다음 DMZ 자전거 투어는 4월 24일과 5월 22일, 9월 25일, 10월 23일에 진행됩니다.

4월 참가 희망자는 4월 4~15일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www.ggtour.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박상욱 kfmbodo@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7.9 cm



평화 영원 DMZ 자전거 투어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27일 열린 '비무장지대(DMZ) 자전거 투어'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DMZ 일대를 달리고 있다. 이날 참가자 200여명은 임진각을 출발해 통일대교와 초평도 등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 임진강변을 달렸다. 파주=김지훈 기자

18.8 X 6.5 cm

자전거 타고 DMZ 달리며 봄 정취 만끽

자전거 타고 DMZ 달리며 봄 정취 만끽

(과주=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경기도는 27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올해 첫 '비무장지대(DMZ) 자전거 투어' 행사를 열었다.

자전거를 타고 DMZ 일대를 달리는 국내 유일의 행사로, 도는 2010년부터 매년 5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중급 코스 17.2km와 초급 코스 14km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자 200여 명은 임진각을 출발, 통일대교와 초평도 등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 임진강변을 달리며 봄 정취를 만끽했다.

자전거를 타는 도중 엽서 보내기, DMZ 사진전, 뽕안경 관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다음 DMZ 자전거 투어는 4월 24일과 5월 22일, 9월 25일, 10월 23일 진행된다.

4월 참가 희망자는 4월 4~15일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www.ggtou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장비를 빌리면 3천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DMZ 자전거 투어는 안보 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해 총 1만5천명이 참여했다.

kyoon@yna.co.kr
(끝)

200명 라이더 복적... DMZ 자전거투어 성황

매월 넷째주 일요일 5회 개최

금단의 땅, DMZ에서 열린 올해 첫 자전거 투어가 성황리에 열렸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 임진각에서 '2016년도 제1회 DMZ자전거 투어'가 열렸다.

DMZ 자전거 투어는 DMZ 일원을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행사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해왔다.

특히, 임진강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은 물론, 안보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총 1만5천 명의 인원이 다녀갔다.

이날 행사가 열린 파주 임진각에는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민통선의 봄을 느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200여명의 라이더들이 찾아와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이날 임진각 통문에서 출발해 통일대교와 초평도를 지나 64 통문을 돌아오는 임진강변 일대 코스를 달렸다. 특히, 행사는 참가자들의 능력에 맞춰 17.2km 중급 코스와 14km의 초급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이외에도 엽서 보내기, DMZ 사진전, 쌍안경 관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5천 원 상당의 농산물교환권과 생수, 간식 등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올해 DMZ자전거 투어를 이번 3월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인 다음달 24일, 5월 22일, 9월 25일, 10월 23일 총 5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달에 열리는 DMZ 자전거 투어 행사의 참가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15일 까지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www.ggtour.or.kr)를 통해 신청 받는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장비대여료 3천 원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조운성기자

올해 첫 DMZ 자전거 투어 파주 임진강서 뿔뿔 달렸네

경기도는 27일 오후 2시 파주 임진각에서 올해 첫 'DMZ 자전거 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자전거로 DMZ 일대를 달리며 안보 체험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행사다.

이날 모인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임진각 풍문에서 출발, 통일대교와 초평도를 거쳐 64봉문을 돌아오는 임진강변 코스를 누비며 자연을 만끽했다.

이 외에도 엽서 보내기, DMZ 사진전, 쌍안경 관람, 농산물교관권 지급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도는 올해 DMZ 자전거 투어를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인 다음 달 24일, 5월 22일, 9월 25일, 10월 23



일 총 5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 달 열리는 행사는 오는 4~15일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www.ggtou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

며, 장비대여료 3천 원은 별도 지불하면 된다. 한편, 도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연천군 임진물새물랜드 아영장에 'DMZ 자전거 투어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해 방문객들이 평화누리길 11코스인 '임진적벽길'을 자전거로 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기호 기자 skh@khlbo.co.kr

10.5 X 13.0 cm

朝鮮日報

2016년 03월 28일 (월)
16면 권고

경기 북부~서울 자전거길 잇는다

고양·양주·의정부·포천·남양주·구리 등 경기 북부 6개 지역과 서울 한강변 북쪽 구간을 잇는 '경기 북부 순환 자전거길'이 올해 완성된다. 경기도는 2013년 11월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역별로 아직 연결되지 않은 구간(총 27.7km)의 공사를 오는 6월에 시작해 연말에 끝낼 예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경기 북부 6개 지역과 공릉천·장릉천·중랑천·백석천·왕숙천 등 주로 하천 구간에 설치된 서울의 자전거길도 고리 모양으로 이어진다. 총 길이는 130km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고양 삼송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등 경기 북부의 신도시와 생태·문화·관광지를 연계한 친환경 자연 체감형 자전거길을 만들겠다"면서 "1박2일 자전거 여행 코스로도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권상윤 기자

5.5 X 10.3 cm

통일 염원 안고... '두 바퀴'로 달린 DMZ

임진각서 올해 첫 자전거 투어
200여명 14~17.2km 코스 질주

파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자전거를 타고 DMZ(비무장지대) 일대를 달리는 국내 유일의 'DMZ자전거 투어'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2016년도 제1회 DMZ자전거 투어'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DMZ 일원

을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이벤트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010년부터 실시해 왔다.

이날 행사는 특히 임진강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은 물론, 안보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총 1만5000명의 인원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행사가 열린 파주 임진각에는 가족과 친구 등과 함께 민통선의 봄을 느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200여명

의 리더들로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임진각 통문에서 출발해 통일대교와 초평도를 지나 64통문을 돌아오는 임진강변 일대 코스를 달렸다.

행사는 참가자들이 능력에 맞춰 달릴 수 있도록 17.2km 중급코스와 14km의 초급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이 밖에도 엽서 보내기와 DMZ 사진전, 쌍안경 관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5000원 상당의 농산물교환권과 생수, 간식 등도 제공됐다.

다음 DMZ 자전거 투어는 오는 4월 24일과 5월 22일, 9월 25일, 10월 23일에 진행된다.